

# 엄마가 밍고, 동생이 미워도 빌지 말아요 이상한 소원은



《소원을 들어주는 선물》  
김선연 글 | 이상진 그림 | 웅진닷컴 | 118쪽 | 북7,000원



《혼자 있고 싶었지만》  
데이브 커틀러 글 · 그림 | 이상진 옮김 | 국민서관 | 36쪽 | 북8,000원

숙제는 언제 하니,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공부는 다 해놓은 거니, 옆집 준호는 이도 잘 닦는다는데 넌 세수도 스스로 못하니, 어린 동생을 울리면 어떡하니... 아버지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 때문에 “휴우” 한숨을 내쉬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 형의 잔소리 때문에 한숨을 내칩니다. 차분하게 들어보면 다 영양가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나기 일쑤지요. 가족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 안 먹겠다고 시위하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혼자 있고 싶었지만》과 《소원을 들어주는 선물》의 주인공들도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불만이 많은 두 친구가 어떻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는지 두 권의 책은 그 과정들을 각각 개성 있게 보여줍니다.

《혼자 있고 싶었지만》의 주인공은 부모님께 화가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기 시작하죠. 어느새 잠에서 깨보니 주인공은 파란 풀밭을 배경으로 혼자 서 있습니다. 주변엔 반짝반짝 아름다운 별과 달, 행성들이 춤추고 있고 온갖 신기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시무룩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곁에 있어도 함께 즐기고 웃을 가족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지요. 우리는 왜 누군가의 소중함을 그 존재가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아무도 없는 행성에 떨어진 상황을 통해 철학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들어주는 선물》의 민재가 미워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몸이 약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다숨이와 소녀가장임에도 성실히 생활해 칭찬을 받는 옆집 현아입니다. 동생이 아프던 날 현아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재는 현아와 함께 소원을 들어준다는 솟대를 찾으러 갔다가 현아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민재의 어린 마음과는 달리 현아의 소원은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는 겁니다. “너처럼 있을 거 다 있는 애가 소원에 대해 뭘 아는데?”라고 되묻는 현아의 말을 듣고 보면 책을 펼치는 어린이들 역시 내게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될 테지요. 민재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배워가고, 다숨이의 소중함, 다숨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합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와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환경의 아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씨를 선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혼만 내는 부모님이 밍고, 칭찬만 받는 형제들이 미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사라졌으면...”하는 이상한 소원은 빌지 마세요. ‘나’는 가족들로 인해 몇 배 더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김민**



글 | 김용연 기자



## 순도 100퍼센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속으로 일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어린애처럼 자식들에게 투정도 잘 부리고, 단 음식을 좋아하고, 간혹 아이들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게 삶의 진리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저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등장합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어 묶은 할머니와 멋진 베레모를 눌러쓴 할아버지. 두 분은 무슨 얘기를 나누실까요? 쪽 진 머리는 은통 하얗게 변했고 얼굴 가득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소녀 같은 생각만 하십니다. 뉴욕에도 가보고 싶고,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고고도 싶고... 여전히 꿈 많은 젊은이 같죠.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듯, 공감한다는 듯 다양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때론 선문답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노부부 사이의 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성실한 문답들이 책 한 장 한 장을 펼칠 때마다 계속됩니다. 누가 노인의 일상을 지루하다고 말했나요?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잼을 만들고, 라디오를 들고, 화초를 가꾸는 등 부지런히 소일도 합니다. 두 분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까닭은 수다쟁이 할머니의 엉뚱한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해주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분이 추억할 거리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겠죠. 만약 소일거리 없이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린애마냥 엉뚱한 수다를 좋아하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감정 나눔 운동회”에 간 날 내가 입었던 드레스 기억나요?”, “그때 임자 정말 고왔지!” 이렇듯 공유할 추억이 많은 노인 부부라면 “나나” 다행일 테지만,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라면 그 쓸쓸함이 더할 테니 “그렇죠?”, “맞아요”라고 맞장구도 칠까며 어르신들과 순수함을 공유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민정 지음 | 김선화 그림 | 함양민중학교 | 문학동네어린이 | 32쪽 | 값 7,000원

## 얼굴색 다른 지미도 우리의 친구

씻어도 씻어도 얼굴이 까만 친구가 있습니다. 본래 피부색이 까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피부 색깔부터 시작해 우리와는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놀리기 바쁩니다. 이 세상에는 백인도 있고 우리 같은 황인도 있지만 때론 우리에게 낯선 소수 인종도 있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겠지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외로운 지미》의 지미 가족들은 사람들의 이런 편견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동생 수니는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인 아버지는 육설과 구타를 당하며 공장을 다니지요. 그럼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책은 부모와 떨어져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는 지미가 학교 운동회에 엄마를 모셔오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 도시로 가출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미의 바람과는 달리 도시에서 겨우 상봉한 엄마, 아빠, 동생 수니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요. 지미의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미네 가족을 도우려 애쓰지만 지미의 가족들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습니다. 글을 쓴 김일광씨는 지미의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를 아버지의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한 아이를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빗진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인종, 민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만들지 말자는 작가의 메시지가 평화,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이야기. 말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수록했습니다. **주요**



《외로운 지미》  
김일광 지음 | 함양민중학교 | 정선화 그림 | 함양민중학교 | 188쪽 | 값 9,800원

글 | 김청연 기자